

비전형적인 구성원과 사회 비교 유형이 집단과 개인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전우영 · 이훈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구성원이 낮은 시험 점수를 받은 집단에 시험 점수가 매우 높은 비전형적인 구성원이 포함되었을 때, 그를 포함한 집단 전체와 비전형적인 구성원 외의 다른 개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전형적인 구성원의 효과는 사회적 비교 유형에 따라 달라졌다. 집단내 비교 시에는, 시험 점수가 낮은, 다수를 집단대표정보로 지각하였다. 그 결과, 시험 점수가 높은 구성원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에 대한 평가는 시험 점수가 높은 구성원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집단간 비교 시에는, 두 집단의 차이를 가장 잘 변별시켜 주는, 시험 점수가 높은, 비전형적인 구성원을 집단대표정보로 지각하였다. 그 결과, 시험 점수가 높은 구성원이 포함된 집단을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개인에 대한 평가 시에는, 집단내 비교 조건과 집단간 비교 조건 모두에서 시험 점수가 높은 구성원과 다른 개인들 간에 대비효과가 나타났다. 즉, 시험 점수가 높은 구성원이 포함되지 않은 조건보다 포함된 조건에서 시험 점수가 동일한 개인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시험 점수가 매우 낮은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는 시험 점수가 높은 구성원의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했다. 즉 비전형적인 사례와 점수의 차이가 매우 컸던 개인들에게는 대비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가 고정관념의 변화와 행복감에 대한 연구들에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았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크게 늘었고, TV, 광고, 그리고 영화 등의 대중매체에도 전문직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여성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가정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은 가정에서 가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

되고, 전문직을 가진 여성은 대다수의 여성들과는 다른 비전형적인 사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Bodenhausen, Schwarz, Bless, 그리고 Wänke(1995)에 의하면 비전형적인 구성원이 그가 속한 집단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가정할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비전형적인 구성원에 대한 평가가 그가 속한 집단 전체로 일반화되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된 외집단 성원과 접하게 되면 외집단 전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즉,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능력 있는 여성은 우

* 이 연구는 1996년도 한국심리학회 창립 50주년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기초한 것임.
익명의 심사위원님들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리사회의 여성들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TV를 통해 매우 능력 있는 여성을 보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다수의 여성들의 능력을 이전보다 더 낮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Jhally와 Lewis(1992)에 의하면 긍정적으로 평가된 외집단 성원과 접하게 되면 외집단 전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흑인보다는 가난한 흑인들이 다수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흑인은 일반적인 흑인에 비해 비전형적인 사례이다. Jhally와 Lewis(1992)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성공한 흑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수의 백인들에게 미국사회에는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고 한다. 따라서 다수의 흑인들이 가난한 것은 차별 때문이 아니라 흑인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The Cosby Show와 같이 매우 성공한 흑인이 나오는 TV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은 흑인에 대한 평가를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설명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된 비전형적인 구성원을 접하게 되면 집단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거나 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러한 반대되는 두 가지 가정에 대해 통합적인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전우영과 이훈구(1992, 1996)의 집단대표정보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들은 집단에 대한 평가는 집단대표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개인에 대한 평가는 집단대표정보와 사회적 비교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집단대표정보

전우영과 이훈구(1992, 1996)에 의하면 집단에 대한 평가는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긍정적인 정보가 부정적인 정보보다 많은 두 집단간의 비교 시에는, 두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좋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보다 더 많은 두 집단에 대해 평가할 때는, 두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가 더 적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좋게 평가된다는 것이다(전우영·이훈구, 1992).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우영과 이훈구(1992)는 피험자들에게 집단 A, 집단 B, 집단 C, 그리고 집단 D 각각의 긍정적인 행동 8, 4, 1, 2개와 부정적인 행동 2, 1, 4, 8개를 제시했다. 집단 A와 집단 B는 각기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의 비율이 2:1로 동일하게 바람직한 집단이었고, 집단 C와 집단 D는 그것이 1:2로 동일하게 바람직하지 않은 집단이었다. 사람들이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의 비율에 근거해서 집단에 대해 평가한다면 집단 A와 집단 B에 대한 평가는 동일해야 하고, 집단 C와 집단 D에 대한 평가도 같아야 한다. 그러나 집단대표정보에 기초해서 집단에 대해 평가한다면 집단 A와 집단 B를 대표하는 정보는 긍정적인 정보인데, 집단 A의 긍정적인 정보가 8개로 집단 B의 긍정적인 정보인 4개보다 많기 때문에 집단 A를 집단 B보다 더 바람직한 집단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집단 C와 집단 D를 대표하는 정보는 부정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가 4개인 집단 C보다 8개인 집단 D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실험 결과는 집단대표정보의 효과에 대한 가정의 예상과 일치하였다. 즉, 피험자들은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의 비율에 근거하지 않고 각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에 기초해서 집단에 대해 평가를 하였다.

집단간 비교와 집단내 비교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사회적 비교의 유형이다.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한 평가는 집단간 비교와 집단내 비교라는 두 개의 사회적 비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전우영·이훈구, 1996; Brewer, 1996). 집단내 비교는 개인을 그가 속한 집

단내의 다른 성원들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고, 집단간 비교는 개인을 다른 집단의 성원들과 함께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Brewer(1996)에 의하면 집단내 비교 시에는 개인에 대한 인상형성은, 동일한 범주의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보다는, 같은 집단내의 사람들 간의 차이를 구분해주는 특성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반면 집단간 비교 시에는 동일한 범주내의 개인들간의 차이보다는 집단간의 차이가 개인에 대한 인상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따라서 집단간 비교 시에는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에 의해 인상이 형성되고, 개인간의 차이를 제공하는 개별적인 정보는 무시되거나 동화된다고 한다.

전우영과 이훈구(1996)에 의하면 집단내 비교 시의 지각의 목적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얼마나 다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집단내에서 각 구성원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어떤 사람이 속한 집단의 전체적인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그 사람의 집단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집단 전체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각 구성원들을 그 기준과 비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내 비교 시에는 개인에 대한 평가는 집단 전체에 대한 평가와 대비된다고 한다. 어떤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은 그 집단의 부정적인 평가와 대비되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평가된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의 대비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내 비교 시에는 동일한 개인일지라도 대표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에 속했을 때보다 대표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에 속했을 때 더 좋게 평가된다고 한다.

집단간 비교의 목적은 두 집단간의 차이를 지각하는 것이다. 범주화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두 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는, 각 집단 내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지각된 일치성이 증가하는 반면, 두 범주간에는 지각된 차이가 증가한다고 한다(Doise,

Deschamps, & Meyer, 1978; Tajfel & Wilkes, 1963). 즉, 집단에 대한 범주화는 동일한 집단에 소속된 개인들은 더욱 비슷하게 보이고, 다른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더욱 다르게 보이도록 한다. 따라서 집단간 비교 시에는 개인에 대한 평가는 집단에 대한 평가에 동화될 것이다. 그 결과 집단간 비교 시에는 동일한 개인일지라도 대표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에 속한 사람이 대표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에 속한 사람보다 더 좋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전우영과 이훈구(1996)의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에게 두 집단의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도표화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피험자들은 집단간 비교 조건에서는 시험 점수가 동일한 학생이라도 부정적으로 평가한 집단에 속했을 때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집단에 속했을 경우에 더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하였다. 즉, 집단간 비교 조건에서는 개인에 대한 평가는 집단에 대한 평가에 동화되었다. 반면 집단내 비교 조건에서는, 시험 성적이 중간범위에 속하는 경우에, 시험점수가 동일한 학생이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집단에 속했을 때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집단에 속했을 경우에 더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하였다. 즉, 집단내 비교 조건에서는 개인에 대한 평가는 집단에 대한 평가와 대비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비교의 유형에 따라 동일한 개인이 서로 다르게 평가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전형적인 구성원이 집단과 개인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비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집단내 비교의 목적이 동일한 집단 내에서 개인들간의 차이를 지각하는 것이라면, 집단내 비교 시에는 비전형적인 구성원과 집단대표정보를 포함한 다른 개인들 간에 대비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 집단에 매우 긍정적인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우 긍정적인 사례를 포함한 집단 전체에 대해 이전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만약 대다수의 학생들이 평균보다 낮은 시험점수를 받았다면 이 집단의 대표정보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집단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이 집단에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이 더해 진다면 집단의 시험 성적의 평균은 높아진다. 그러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존재는 집단을 대표하는 평균 점수 이하의 성적을 받은 대다수의 학생들의 성적을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하게 만들어서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을 포함한 집단 전체에 대한 평가는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집단간 비교의 목적은 두 집단간의 차이를 지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집단내의 다른 성원들 끼리는 동화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집단간 비교 시에는 비전형적인 구성원과 집단대표정보를 포함한 다른 개인들 간에 동화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집단간 비교 시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한 집단에 매우 긍정적인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우 긍정적인 사례를 포함한 집단 전체에 대한 평가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대다수의 학생들이 평균보다 낮은 시험점수를 받았다면 이 집단의 대표정보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집단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이 집단의 성적을 다른 집단과 비교하는 경우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존재는 집단을 대표하는 평균점수 이하의 성적을 받은 대다수의 학생들의 성적을 더 긍정적인 것으로

지각하게 만들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포함한 집단 전체에 대한 평가는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실 험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구성원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집단에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성원이 포함됨에 따라 그를 포함한 집단 전체와 그 외의 다른 개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피험자들에게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도표화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조건 1에서는 그림 1과 같은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그림 1의 집단 A는 매우 긍정적인 구성원이 포함되기 전에 우리가 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표상을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조건 1은 비전형적인 구성원이 포함된 조건 2와 3에서 집단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해 준다. 조건 1에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따라서 집단대표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이었고 전체 학생들의 성적의 평균은 33점이었다.

조건 2에서는 그림 2와 같은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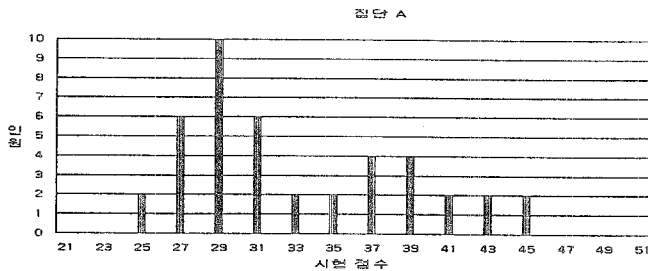


그림 1. 평균 33점인 집단의 성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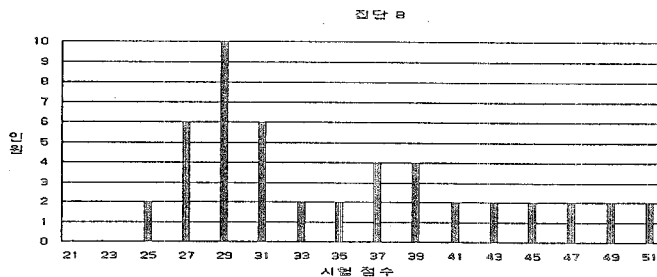


그림 2. 평균 35점인 집단의 성적분포

그림 2의 집단 B는 대다수의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하지 못한 집단에 성적이 매우 우수한 비전형적인 구성원이 포함되었을 때를 나타낸 것이다. 집단 B도 대표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이었다. 그러나 매우 성적이 좋은 학생 6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생 전체의 성적의 평균은 35점이었다. 따라서 조건 2는 집단내 비교 시 비전형적인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를 나타낸다.

조건 3에서는 그림 1과 2를 모두 제시하였다. 하지만 평가대상은 그림 2였다. 따라서 조건 3은 집단간 비교 시 비전형적인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학생의 성적이 나쁜 집단에 속한 성적이 우수한 사례가 집단과 개인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비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집단내 비교 시에는 비전형적인 구성원과 집단대표정보를 포함한 다른 개인들 간에 대비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매우 우수한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에, 비전형적인 사례를 포함한 집단 전체와 그 외의 다른 개인들은 비전형적인 구성원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즉, 조건 2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여섯 명의 학생이 포함돼서 시험 성적의 평균(35점)이 조건 1(33점)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1이 더 우수한 집단이라고 평가될 것이다. 또한 동일한 점수를 받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조건 2에 속한 경우보다 조건 1에 속한 경우에 성적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될 것이다.

집단간 비교 시에는 비전형적인 구성원과 집단대표정보를 포함한 다른 개인들 간에 동화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성적이 매우 우수한 비전형적인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에, 비전형적인 구성원을 포함한 집단 전체와 그 외의 다른 개인들에 대해 비전형적인 구성원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즉, 조건 3(35점)은 조건 1(33점)보다 더 우수한 집단이라고 평가될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점수를 받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조건 1에 속한 경우보다 조건 3에 속한 경우에 성적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될 것이다.

방 법

피험자

연세대학교에서 개설된 「인간 행동의 심리적 이해」 수강생 중 52명이 피험자로 참가하였다. 피험자들은 각 조건에 무선 할당했으며, 한 번에 3-10명씩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들 중 1명은 개인에 대한 성적 평가 시에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예: 33점)보다 낮은 사람(예: 29점)을 성적이 더 좋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 피험자는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모든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통계분석 시에는 51명의 자료만 이용하였다.

자극재료

피험자에게는 그림 1과 2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이 그래프는 대학생 집단의 중간 시험 성적을 도표화한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각 그래프의 상단에는 집단에 대한 명칭을 A 또는 B로 부여하였다. 두 집단의 차이는 한 집단의 경우에 매우 성적이 좋은 학생이 여섯 명 포함되어 있다는 것 뿐이다.

절차

조건 1과 2는 집단내 비교 조건에 해당된다. 두 조건에서는 한 집단의 그래프만을 제시하였고, 자극으로 제시한 그래프는 모두 집단 B라고 명명하였다. 조건 3은 집단간 비교 조건에 해당된다. 이 조건에서는 비전형적인 성원이 포함된 집단의 그래프와 포함되지 않은 집단의 그래프를 모두 제시하였다. 평가 대상인 비전형적인 성원이 포함된 집단은 B라고 명명하였고, 다른 집단은 A라고 명명하였다. 조건 3에서도 피험자들은 집단 B라고 명명한 하나의 집단과 그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해서만 평가했다. 따라서 모든 조건의 피험자들은 집단 B에 대해서만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평가, 집단 평가, 대표정보에 대한 지각이라고 하는 세 가지 중속측정치를 사용하였다. 집단과 개인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험자들에게 각 집단에 속한 6명의 개인과 집단 전체의 성적이 얼마나 좋은 편인지에 대해 1(매우 나쁘다)에서 11(매우 좋다)에 이르는 척도 상에서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집단대표정보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집단에 대한 평가 시에 판단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점수를 하나만 고르도록 하였다.

개인에 대한 평가 시에는, 집단내 비교 조건에서는 이 집단내의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도록 하였고, 집단간 비교 조건에서는 두 집단의 모든 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집단에 대한 평가 시에는, 집단내 비교 조건에서는 집단 B의 학생들의 성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집단간 비교 조건에서는 집단 A와 비교할 때, 집단 B의 학생들의 성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중속 측정의 순서는 개인 평가, 집단 평가, 대표정보에 대한 지각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본 연구가 집단대표정보에 대한 지각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중속 측정치일수록 마지막에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실험이 끝난 후 피험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분석되는 대로 수업시간에 설명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를 이행하였다.

결 과

집단에 대한 평가

사회적 비교 유형에 따라 비전형적인 구성원이 집단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조건 1을 비교의 기준으로 이용하여, 조건 1과 2 그리고 조건 1과 3 간에 집단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집단내 비교 시에는 성적이 우수한 비전형적인 구성원은 집단에 대한 평가를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즉, 성적이 우수한 구성원이 없는 조건 1보다 성적이 우수한 구성원이 있는 조건 2가 더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조건 1(평균=4.47)과 2(평균=4.44)

표 1. 조건별 집단에 대한 평가

조 건	사례수	평 균	표준 편차
1. 비전형적인 구성원 무 (평균 33점)/집단내 비교	19	4.47 _b	1.35
2. 비전형적인 구성원 유 (평균 35점)/집단내 비교	16	4.44 _b	1.55
3. 비전형적인 구성원 유 (평균 35점)/집단간 비교	16	7.63 _a	.62

주. a와 b는 *t* 검증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간에 집단에 대한 평가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집단내 비교 조건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구성원이 집단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실제로는 조건 2의 학생들의 시험 성적의 평균(35점)이 조건 1의 학생들의 성적의 평균(33점)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없었다.

집단간 비교 시에는 성적이 우수한 구성원이 집단에 대한 평가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예상대로 조건 1(평균=4.47)보다 조건 3(평균=7.63)에서 집단 전체의 성적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t_{33}=8.60, p < .001$.

집단대표정보에 대한 지각

피험자들이 각 조건별로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피험자들에게 집단에 대한 평가 시 판단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은 점수를 하나만 고르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조건 1과 2에서 집단에 대한 평가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시험 점수는 29점이었다. 집단내 비교 조건에서는 각 집단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점수, 즉 최빈치를 대표정보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건 3에서는 대다수의 피험자들이 집단에 대한 평가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시험 점수가 51점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집단간 비교의 목적이 두 집단간의 차이를 지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집단간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점수인 51점이 집

표 2. 조건별 집단대표정보 추정

	시험 점수	사례수	%
조건 1			
	29	14	73.7
	31	3	15.8
	33	1	5.3
	45	1	5.3
조건 2			
	29	8	50.0
	33	2	12.5
	35	1	6.3
	37	1	6.3
	39	1	6.3
	45	1	6.3
	51	2	12.5
조건 3			
	29	1	6.3
	47	1	6.3
	49	3	18.8
	51	11	68.8

단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한 평가

비전형적인 구성원이 같은 집단내의 다른 성원들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비교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건 1을 기준으로 하여, 조건 1과 2 그리고 조건 1과 3간에 개인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두 개의 조건과 여섯 개의 시험 점수로 이루어지는 2×6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조건은 피험자간 변인이었고 시험 점수는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결과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조건 1과 2의 시험 점수는 25점에서 45점 사이에 있었고, 조건 3의 시험 점수는 25점에서 51점 사이에 있었다. 시험 성적이 동일한 개인들에 대한 피험자들의 평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분석에는 세 조건의 시험 점수의 공통된 범위에 속하는 25점에서 45점 사이의 6명의 개인에 대한 점수만을 비교하였다.

집단내 비교 조건에서는 개인에 대한 평가가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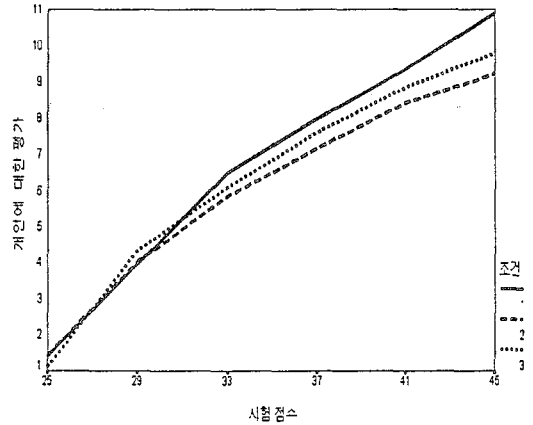


그림 3. 조건과 시험 점수에 따른 개인에 대한 평가

형적인 사례와 대비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즉, 시험 성적이 동일할지라도 성적이 우수한 구성원이 없는 조건 1보다 우수한 구성원이 있는 조건 2에서 성적이 나쁜 것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예상대로 조건 1과 2의 비교 시에는 조건의 주효과와, $F_{1, 33} = 15.60, p < .001$, 시험 점수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_{5, 165} = 825.69, p < .001$. 그리고 조건과 시험 점수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였다, $F_{5, 165} = 8.20, p < .001$.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건 2에서 33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성적이 매우 우수한 구성원과의 대비 효과 때문에, 동일한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1보다 성적이 더 나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25점과 29점을 받은 개인에 대한 평가는 조건 1과 2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집단간 비교 조건에서는 개인에 대한 평가가 비전형적인 사례에 동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즉, 시험 성적이 동일할지라도 성적이 우수한 구성원이 없는 조건 1보다 우수한 구성원이 있는 조건 3에서 성적이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조건의 주효과와, $F_{1, 33} = 6.67, p < .05$, 시험 점수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_{5, 165} = 1077.33, p < .001$. 그리고 조건과 시험 점수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였다, $F_{5, 165} = 5.20, p < .001$.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33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조건 3보다 1에서 더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즉, 집단간 비

교 조건에서도 개인에 대한 평가가 비전형적인 사례에 동화되지 않고 대비되었다.

논 의

개인에 대한 평가 시, 집단간 비교 조건과 집단내 비교 조건 모두에서 3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에만 비전형적인 구성원과의 대비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29점 이하의 점수와 비전형적인 구성원간의 점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 전학을 오면 그전에 학급에서 성적이 좋은 편이었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아지지만, 꼴찌를 하던 학생에 대한 평가는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즉, 51점과 같은 비전형적인 구성원 때문에 생기는 대비효과는 비전형적인 구성원과 적절한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33점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집단내 비교 시에는 집단에 대한 평가는 비전형적인 구성원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했다. 즉, 비전형적인 구성원에 의한 대비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조건 1과 2 모두에서 집단대표정보가 29점으로 지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에 대한 평가는 집단대표정보에 대한 지각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조건 2에서 비전형적인 구성원과 대표정보인 29점 사이에 점수 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비전형적인 구성원이 집단대표정보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집단에 대한 평가에서도 비전형적인 구성원에 의한 대비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집단간 비교 시에는 집단대표정보와 비전형적인 구성원간에 동화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즉, 낮은 점수를 받은 다수의 학생들을 대표정보로 지각하고, 그들의 성적이 비전형적인 구성원 때문에 더 좋게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조건 3에서 대다수의 피험자는 집단대표정보를 51점으로 지각하였다. 따라서 집단을 대표하는 다수, 즉 29점을 받은 학생들의 성적이 더 우수하게 지각되었기 때문

이 아니라, 조건 3에서 집단대표정보가 51점으로 지각되었기 때문에 집단대표정보가 29점으로 지각된 조건 1보다 집단에 대한 평가가 더 긍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가설을 제공한다. 즉, 다수가 늘 집단대표정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소수도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로 지각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국민의 다수의 체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별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간의 비교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때는 각 집단 내에서는 비전형적인 사람들이 집단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수정보에 기초한 집단 평가 시에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딴 나라와 메달을 하나도 획득하지 못한 국민들의 실제 운동능력과 건강 상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메달을 많이 딴 나라의 국민이 메달을 하나도 획득하지 못한 나라의 국민보다 건강하고 운동을 잘 할 것이라고 평가한다면 이는 소수의 집단대표정보에 기초해서 집단을 평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정관념의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만약 여성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중매체를 통해 가끔 등장하는 매우 능력 있는 여성을 보는 것은 여성 전체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과 함께 생활하는 주위의 개별적인 여성의 능력에 대해 이전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는 집단간 비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능력 있는 여성이 다른 남성과 비교했을 때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간 비교 시에도, 극단적으로 능력 있는 여성은 여성 전체에 대한 평가에는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여성 개인들에 대한 평가는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행복에 대한 범위-빈도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다. Parducci(1984)에 의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사건만을 경험한 사람이 매우 긍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매우 기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대다수의 부정적인 사건을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하게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가정은 개인이 경험한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만족에만 적용된다. 개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한 만족감에는 극단적으로 행복한 사건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매우 긍정적인 사건이 대부분의 부정적인 사건과 매우 큰 차이가 나는 것이라면 전반적인 행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전반적인 행복감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과 거의 비슷하게 부정적인 사건만 경험한 친구와 비교한다면, 자신이 경험한 매우 긍정적인 사건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행복감을 증진시킬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건이 자신에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대비효과를 일으켜서 만족감을 낮출 것이다. 예를 들어 주부들이 TV를 통해 사회에서 성공한 전문 여성을 본다면 이는 대비효과를 일으켜서 주부들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리고, 그 결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몇 가지 제한점¹⁾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피험자들에게 동일한 종류의 과제를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할 경우 요구 특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피험자들이 비전형적인 구성원이 포함된 집단과 포함되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고정관념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구 특성이 개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일한 피험자들이 비전형적인 구성원이 포함되기 전의 집단과 그 구성원들에 대해 평가한 다음에, 비전형적인 구성원이 포함된 후에 다시 그 집단과 구성원들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여 어떤 차이가 나오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1) 아래의 제한점들은 익명의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에 기초한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대표정보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집단에 대한 평가 시 판단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은 점수를 하나만 고르도록 하였다. 이는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피험자들이 평균을 추정하라는 지시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피험자들이 평가 시에 중요하게 고려한 점수와 그 집단을 대표한다고 생각한 점수는 같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후의 연구에서는 집단대표정보에 대한 지각을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종속측정치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전우영 · 이훈구(1992). 고정관념 형성에 미치는 집단 대표정보량의 효과: 착각적 상관과 집단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94-108.
- 전우영 · 이훈구(1996). 집단대표정보와 사회비교 유형이 집단과 개인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범위-빈도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2), 69-79.
- Bodenhausen, G. V., Schwarz, N., Bless, H., & Wänke, M.(1995). Effects of atypical exemplars on racial beliefs: Enlightened racism or generalized appraisal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48-63.
- Brewer, M. B.(1996). When stereotypes lead to stereotyping: The use of stereotypes in person perception. In C. N. Macrae, C. Stangor, & M. Hewstone(Ed.), *Stereotypes & Stereotyping*(pp. 254-275). Guilford Press.
- Doise, W., Deschamps, J. C., & Meyer, G.(1978). The accentuation of intra-category similarities. In H. Tajfel(Eds.),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pp. 159-168). London: Academic Press.
- Jhally, S., & Lewis, J.(1992). Enlightened racism: The Cosby Show, audiences, and the myth of Amer-

- ican dream. Boulder, CO: Westview Press.
- Parducci, A.(1984). Value judgment: Toward a relational theory of happiness. In J. R. Eiser(Ed.), *Attitudinal judgment*(pp. 3-21). New York: Springer-Verlag.
- Tajfel, H., & Wilkes, A. L.(1963). Classification and qualitative judgment.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56, 317-325.

The Effects of Atypical Members and the Type of Social Comparison on the Evaluations of Groups and Individual Members of That Groups

Woo-Young Chun and Hoon-Ko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subjects' evaluations of groups and individual members of that groups composed of a majority of persons with low test scores and atypical persons with high test scores. As a result, the effect of atypical persons on the impression ratings depended on the type of social comparison. First with regard to the ratings of groups, when subjects made within-group comparisons, they perceived the majority (low scorers) as the representative information of groups. As a result, ratings of the groups did not differ whether or not there was atypical high-scoring members. However, when subjects made between-group comparisons, the atypical high-scorers(who accentuated the difference in between-group comparisons) were perceived as the representative information of groups. That is, subjects rated the group with the high-scorers more positively than the group without them. With regard to the ratings of individual members, there were contrast effects between the high-scorers and the rests of the group members in both the within-comparison and between-comparison conditions. Ratings of the test scores of individuals were more negative when there were atypical high-scoring members in the group than there was none. However ratings of individuals with extremely low scores did not differ whether there were high-scoring members or not. That is, no contrast effects appeared in the ratings of individual members whose scores were extremely different from high-scoring members. Implications of the result to the study of stereotypes and subjective well-being were discussed.